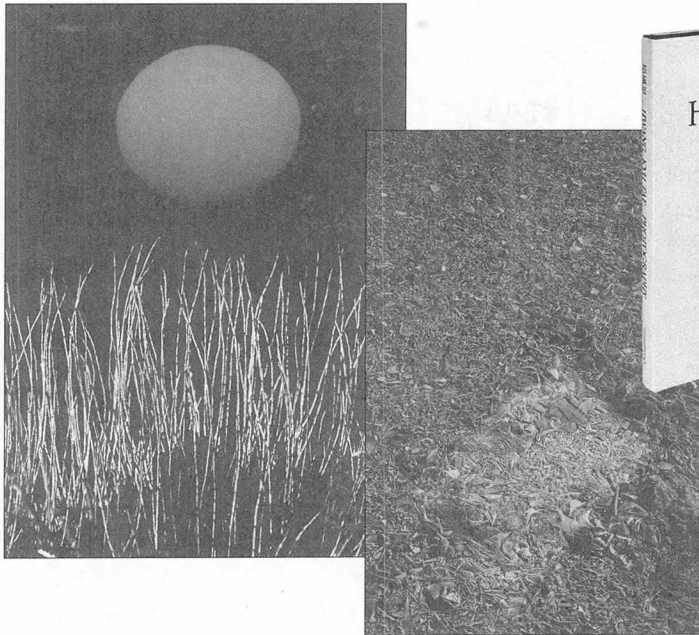


문명, 인간의 이율배반적 이기심 고발

황규태 《원풍경》



· 원(圓), 그 충만한 세계를 향한 열망(왼쪽).
· 물고기의 주검.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조건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더불어 생태조건을 파괴한 원인이기도 하다. 사진작가 황규태(61)의 사진집 《원풍경》(1994, 디자인하우스)은 파괴된 생태조건과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고뇌를 복합적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으킨 문명이 결국 인간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고발하는 것이다.

인간이 동경하는 충만한 세계는 원색의 원(圓)으로 표현된다. 원의 세계, 즉 유토피아에 이르지 못한 인간은 결핍의 고뇌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문명의 풍요에서 벗어난 그들은 오히려 문명의 찌꺼기 속에서 연명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충만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문명의 대명사격인 자동차에 갇힌 올빼미와 바다를 날고 있는 새도 그 세계를 동경한다. 그들은 과연 문명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을까. 철조망 너머 흔들리는 화상 속에 존재하는 한마리 새가 상징적인 답을 전한다.

파괴된 생태계의 처참한 광경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멕시코 북부 국경 근처에 있는 광대한 담수호 위에 앙상한 가지를 드리우고 있는 나무와 그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는 새, 그리고 물고기 무덤의 을씨년스런 풍경은 인간의 이기심의 폐해를 질

책하고 있다. 시든 꽃과 거미줄에 걸린 나뭇잎, 그리고 썩고 있는 먹물거리들은 인간의 음울한 미래를 역설한다. 일그러진 도시의 황량한 풍경과 불타는 건물의 이미지도 그렇다. 인간이 주도할 문명의 발전으로 빛어질 미래의 초상은 그렇게 나락(奈落)의 세계일 것이다.

허공을 날고 있는 올빼미와 갈잎 섞고 있는 물 속의 올챙이, 그리고 자궁 속 태아는 세상

을 채울 새로운 생명이다. 하지만 모태에서 벗어난 이들 역시 문명 세계에 안착할 것이다. 이들의 고단한 삶의 여정은 바코드와 함께 어둠에 갇힌 태아, 박제된 인간형을 대변하는 어린이 인형, 기계화된 여인의 얼굴처럼 절박하다.

원(圓)과 붉은 색의 조형적 요소로 전체적인 톤이 음울한 가운데 별개의 사진을 복합적인 구도에 배치하여 상반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어두운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를 예견하면서도 그에 못지 않은 밝은 기대치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마도 인간의 이율배반적 심성이 바로 그런 세계 어디쯤에 머물고 있을 듯싶다. 《계절의 문장》(1992, 현광사,일본)도 펴냈던 그는 현재 작품사진 촬영에 전념하고 있다.

— 오완진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247호 / 1998년 11월 20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화
 송상용 이중한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頂上의 기획+편집



서울 · 종로구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739-0150(대) 팩스 739-0160

① 어려운 때일수록 그 승부처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 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장정·광고·팜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高品質의 인쇄+제본



서울 · 종로구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739-0150(대) 팩스 739-0160 인쇄·제본공장 465-4707(代)

■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공정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